

## 국가의 병과 개인의 병 고침을 위한 절박한 기도

성경말씀: 요일5:9-15

오늘 2020년 둘째 주 예배를 드린다. 인생을 생각해 본다. 인생은 늘 문제투성이, 고통과 괴로움이 많다. 문제가 있는 것이 정상이다. 죽지 않았다는 증거.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사는 것이 인생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문제를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조치를 취한다. 많은 문제들,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풀린다.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 모두가 경험했을 것이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생긴다. < >

### 하나님을 믿는 사람(9-13)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법정에서 선 증인처럼 증언을 해야 한다. 자기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증언  
9절: 아버지가 아들에 관하여 주시는 증언, 10절: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증언 소유  
11-12절: 증언의 핵심 내용, 13절: 우리는 지금 영생을 확신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인가?

###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14-15)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 그래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긴다. 사람에게 공통적인 일 발생함

우리는 육신의 자녀들을 낳는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돕는다.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14절: 우리의 확신\_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 말을 들으신다.

15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안다.

성경 말씀 요약: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물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위배되는 기도, 오로지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는 배제됨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청원을 들어 주신 줄로 우리는 믿는다.

문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려워하면서도 쉽다. 대다수 문제의 경우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읽고 자기의 양심을 체크하면 된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경우, 아이들처럼 무조건 해 달라고 간구할 때도 있다. 심지어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할 때도 있다(롬8:26-27).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한다(빌4:19). 육심이 아니라 필요이다.

15절의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안다. 내가 기도한 대로 100% 응답이 된다?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모호할 때가 있다. 설교 끝에 말할 것임

### 예수님의 말씀: 기도하지 않으면 낙담하게 된다(눅18:1).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는가? 도움이 필요한 때에 도움을 얻으려고, 성경은 기도와 기도의 응답의 보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그 예수님이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시기에

왜 기도하는가?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살전5:17). 특히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야 한다.

## 병

인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 가운데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병이다.

병은 하나님의 징계 수단으로서의 병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의 죄로 인해 생긴 부산물이다.

병에는 감기처럼 늘 생기는 병, 사고로 인해 생기는 병, 노화로 인해 생기는 병

통계적 판단에 따라 그냥 두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낫는 병, 암 등과 같이 죽을 확률이 큰 병

대다수 사람들의 문제: 살다가 암 등과 같이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특히 젊은 나이에 이것은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겪는 문제, 존 파이퍼 목사 전립선 암

목사의 병에 대한 태도: 목양을 한다. 성도들이 아프다. 우리 교회 특성상 생명이 위독한 병의 경우는 목사에게 소식이 온다. 목사가 심방한다. 그리고 전체 교우가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필요한 경우 목사와 집사들이 손을 얹고 기도한다(약5:14, 16).

오해하면 안 된다: 목사에게 사도행전 시대 사도들 같이 병 고침의 은사가 있어서 안수하는 것이 아니다.

목사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즉 예수님의 양들을 이끌고 나가며 악한 짐승과 싸우기도 하고 양들이 상처를 입으면 낫도록 도와주고 심각한 병에 걸리면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목사는 병에 걸린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희망과 위로를 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는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면 마치 사도행전을 남용하는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

또 무조건 안수하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도 있다.

나의 믿음: 어떤 목사도 사도들이 가졌던 기적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없다. 그러나 성도들이 심한 병에 걸려 고통을 받으면 믿음을 가지고 낮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필요하면 안수 기도도 한다.

이유: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목사의 기본 의무이기 때문이다.

병 고침 기도에 대한 나의 기본 태도: 하나님께 고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이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므로 심각한 병이 들었을 때에 낮게 해 달라고,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고 공경하는 일이다. 너무나 당연한 그분의 뜻이다. 이것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다. 은혜의 왕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

이런 기도에는 특별한 신학 혹은 이론이 없다. 오직 창조자 하나님을 향한 연약한 인간의 호소이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기도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도 나는 기도해야 한다고 믿는다. 왜? 나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한 병을 앓은 성도들을 위해 목사는 기도하고 필요하면 안수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다.

#### 히스기야 이야기: 국가의 병 고침

롬15:4, 구약 성경 열왕기상하에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공하여 형통하는 사람, 불순종을 범하고 영혼육을 망치는 사람  
유다 왕국에는 여러 명의 선한 왕들이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히스기야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 가장 악한 왕 중 하나, 그의 아들은 므낫세, 가장 악한 왕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세운 모든 우상 제거,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왕하18:4)  
그러나 이미 유다 왕국은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렸다. 백성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방 우상들과 같은 종류로 생각하는 사람들,  
왜 가나안 땅에 사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고치기 위해 심판 예비, 아시리아 군대의 침입,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히스기야  
시대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됨, 10지파 온 세상을 쫓겨나감, 유다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산헤립의 침공, 히스기야와 여호와 하나님 조롱(18:33-35)

히스기야의 액션(19:1-2),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함

하나님의 응답(19:20; 32-34), 35절 천사 하나가 185,000명, 아시리아 패배, 히스기야 승리  
대한민국이 바로 지금 유다와 같다. 가장 가난한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 나라가 어떻게 생긴  
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우상 숭배 만연, 하나님을 잃어버림,  
교회 안에서도 노골적인 좌익 좌파 목사, 교인들,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조롱하는 것  
국가의 병을 고치기 위해 목사와 교인들이 해야 할 일(19:1-2). 회개 기도, 하나님의 말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185,000명을 죽였듯이, 구원받은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국가를 망치는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섬멸해 주실  
줄로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 히스기야 이야기: 개인의 병 고침

이 일이 끝나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됨(20:1)

대언자 이사야의 죽음 선포, 지금 식으로 말하면 암 같은 중병 선고

히스기야의 액션(20:2-3), 벽을 바라보고 대성통곡함

하나님의 응답(20:5-6)

지금까지 나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주석을 많이 읽었다.

병 고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학 혹은 이론도 살펴보았다.

나의 결론: 병 고침을 위한 기도에는 신학도 이론도 없다.

오직 연약한 인간이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살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  
히스기야: 하나님의 뜻 같은 것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지금까지 바르게 살려고 했다는 고백(3)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 모두가 바로 이 고백을 하고 간구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문제: 국가의 병, 개인의 병, 죄의 병, 재정 문제, 가정 문제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은 의무이고 특권이다.

그 뒤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일까지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

연약한 우리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2020년도에 또 우리의 인생길 앞날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